[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시각예술

ㅇ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18. 4. 9(월) 10:00~13:0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2차 인터뷰심의) 2018. 4. 13(금) 10:00~14:0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ㅇ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평종, 이 준, 현시원

<서류 심의>

서류심사의 선정 기준으로서 ①우리 창작자과정과의 정합성, ②창작·기획능력, ③계획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정합성'에서는 '신진예술가'로서 지원자의 경력과 계획이 우리 시각예술 지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창작·기획능력'이란 결론적으로 실천성과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출된 포트폴리오 및 기존 경력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계획의 독창성과 가능성'에서는 지원계획서의 선정한 의제와 방법론이 얼마나 참신하며 차별성이 있으며 구체적인지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3가지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중심으로 서류심사를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시각예술의 각 분야별 안배에도 고심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작가의 경우, 설치와 영상 분야 지원자는 많았으나, 조소·회화·사진·공예 등 기존 장르의 지원자는 적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실험적 프로젝트나 다원·융합 프로젝트 역시 대폭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설치·영상·미디어 분야가 이 시대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보다 많은 기존 장르의 신진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기존 예술 장르의 경우, 자기분야에 대한 새로움 추구, 한계극복을 위한 실험, 혹은 기존 방식의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할 텐데, 자기방식의 답습과 형식적 단순실험에 그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큐레이터의 경우 올해 유난히 예술의 사회적 비판과 참여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의 시대적 필요성이 가지는 비중에 비해, 이 의제들이 해당 지원자 개인에게 어떤 당위성을 가지며 과연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따라서 무게 있는 주제선정에 따른 지원자의 신중함과 진정성이 요구된다. 이는 작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비판과 고발이 시대적 반영이더라도, 예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와는 다른, 다각도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예술가의 지원 역시 바란다.

이러한 경향들과 관계하여 이번 심사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독창성' 있는 예술가 선정에 있었다.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비슷한 의제와 스타일을 가진 지원자가 많았으며, 계획과 방법론에서 피상적인 지원자가 많았다. 따라서 작가적·큐레이터적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사 의제를 다루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적 의미를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시각예술

올해 역시 작가부문 지원자가 큐레이터 부문 지원자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수가 큐레이터 수보다 더 많다는 예측이 타당성이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진 큐레이터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큐레토리얼 실천이 있길 열망한다.

<인터뷰심의>

인터뷰 심사의 경우 최종 선정 후보자들의 계획과 수행역량을 바탕으로 독창성과 발전가능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후보자들이 대부분 창작역량이 우수하고 작업계획에 대한 독창성이 비교적 확고함에 따라 선정에 고심하였다. 지원자마다 편차는 있었으나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주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시된 계획안을 전시나 연구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논의함으로써 후보자의 실천력을 확인하였다.

창작계획과 연구주제의 연관성에 대해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거나, 다소 입장이 확립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독창성을 내보이는 지원자들의 경우, 그 발전가능성을 타진하여 선정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 및 주제를 기준으로 균형적 선발에 노력하였다.

후보자들의 주제의식은 다양하였다. 인터넷, SNS, 데이터 등의 미디어와 예술과의 관계, 기술과 이미지, 정체성, 예술의 메타적 관점 등을 연구하는 작가와, 예술과 사회의 관계 및 역사와 과학이론, 동시대성 등의 다채로운 주제 등에 대한 큐레이터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동시대 신진예술가들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제 정립을 위해 설정한 기본 개념들을 연결할 때, 단순나열로 인한 피상적인 연결과 개념 상의 충돌로 프로젝트의 모순을 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적절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실행 방법론의 간극이 큼에따라 실행가능성이 회의적인 프로젝트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설정 개념을 구조화하고 이를 실행하는 연습을 통해 체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모쪼록 이번 한국창작아카데미의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예술가들의 자신의 독창성을 실천하고 확인·검증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시각예술분야 선발 심의위원 일동